

기적이 또 다른 기적으로

김경미 인도 선교사

할렐루야!

존경하는 후원자님.

우리에게 날마다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문안 드립니다.

저는 기장총회에서 실시하는 세계선교사 보고 대회와 비자 갱신을 위하여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제 비자를 기다리며, 다시 돌아 갈 날을 세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시 좋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게 늘 새로운 명령을 주시고, 순종할 수 밖에 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늘 그 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계속하여 부족한 사람을 위해 우리 후원자님께서 기도로 정성과 뜻을 다해 섬겨 주시리라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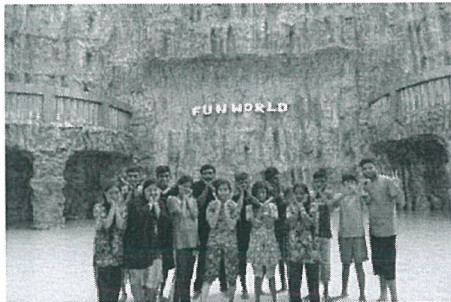
1. 인도는 지금 더운 여름입니다. 현재 기온이 49도를 육박합니다. 그래도 우리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모두 건강하며, 주의 은혜로 고아 그룹 홈 아이들의 졸업 예배, 난달 재봉틀교실 졸업예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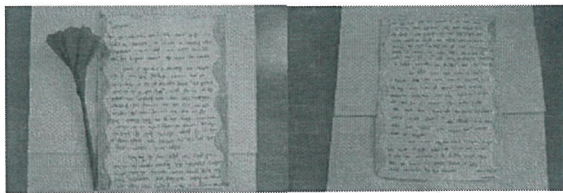
난달 재봉틀 교실은 사실상 자금상의 문제로 지난 3년간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움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되었고, 작년 7월에 시작하여 10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첫 졸업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난달 노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책임자들 모두 한결같이 “끝난줄 알았는데... 다시 오픈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훈련생들은 “우리에게 재봉틀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내 생애에 기술이라는걸 배울 줄 몰랐다. 이제 우리는 사리(인도 전통 옷)뿐 아니라 가방도 만들 수 있다”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사랑의 집수리와 여러 후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2. 토마스(Thomas) 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올 1 월, OO 교회가 단기 선교를 왔을 때, 신학생을 한명 추천 받아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어떤 분이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난달노회 노회장 목사님이 토마스를 추천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님 모두가 은퇴를 하시고 아프신 분들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믿음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분들이라며 교회 건축 헌금도 많이 하시고, 신앙도 아주 좋은 가정입니다. 가정 형편상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으니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가정"이라고..

마침 비전홈 아이들과 바이따빠따 아이들이 함께 뱅갈로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를 만났더니, 자신 소개를 하며 "나는 한국 장학생입니다. 너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 나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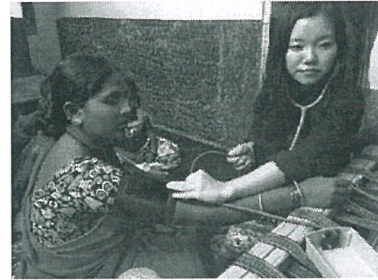
3. 비전 홈 졸업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목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중 사람마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쓴 편지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나를 데려다가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이곳에서 꿈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서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 이곳을 나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이들과 함께 한지도 11 년. 그 시간이 참으로 금방 지났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들을 통해 새로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김은비 소감문 (발음교회 청년, 3 개월간 자원봉사)

3 년 전, 단기선교팀으로 처음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열흘 간 주어진 일정들을 따라가며 제 마음속에 흐릿해지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다시금 선명해졌고, 꺼져가던 꿈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사님과 노회를 통해 마을 공동체가 뭉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비가 삼엄해지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자원봉사자로 다시 찾아온 인도는 처음 방문했던 인도와는 사뭇 달랐으나 사랑은 변함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잠은 잘 잤는지, 밥은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챙겨주시던 선교사님, 현진이와 셋이 함께 창세기를 묵상한 예배시간, 제대로 된 자격증 하나 없는 어린 학생들을 믿고 살피주신 비숍 목사님,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대해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때로는 수업을 방해했을텐데도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웃으며 환영해주신 스쿨 선생님들, 각자의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해주신 바이따빠따 선생님들, 머리를 땅아주고 꽃을 꽂아주며 불을 꼬집으며 이곳의 방식으로 축복해주신 수많은 인연들, 그리고 저보다 더 의젓하고 큰 마음을 보여준 비전흠 가족들.

받은 사랑이 큰 만큼 저도 돌려주면 참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 개월은 감사함도 넘치지만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책으로 얼룩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더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더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면.. 다행히, 아프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좌절을 경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에 돌아가면 공부하고 경험해야 할 계획들이 세워졌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갈래의 길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0 년이 넘는 시간 이곳 사람들과 웃고 울며 ‘살아온’ 선교사님의 생활을 가까이서 보며, 한 어른의 삶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정과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신경 쓰고 작은 것이라도 챙기는 마음, 단호함과 단단함. 또,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고민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것,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것, 늘 나뉘야 하는 삶을 보며 제 미래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닦아야 할 부분과 내가 길러야 할 부분들을 얻은 것 역시 큰 결실입니다.

매일 많은 일이 있었고, 속상했던 시간도 분명 있지만, 그 끝에 남은 열매가 배움이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배움이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DO”로 이어지도록, 인도에서의 감사와 은혜가 공항에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이어지도록 하루하루를 되새기려 합니다.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이곳에서의 모든 생활을 보살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당 뽕!



자원봉사를 마치며...

강현진 (발음교회 청년, 2 개월간 자원봉사)

이곳 난달로 자원봉사를 오기 전까진 인도는 우리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인도의 풍경처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경계심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난달은 달랐다. 어느 곳을 가도 환영받고 먼저 다가와 인사해주며 안부를 물었다. 내가 직접 수업을 했던 CSI 학교, 비전홈은 물론이고 여러 교회를 다니며 봉헌식을 할 때 정말 놀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환영한다며 악기를 연주하고 꽃을 걸어주었다. 한번도 보지 못했던 외국인들을 위해 꽃을 뿌려주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CSI 학교에선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아이들이 뛰어나와 이름을 불러주며 안부를 묻는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선 자기이름을 알려주며 기억해달라고 하였다.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오는 모습, 자기이름을 꼭 기억해달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어보는 모습이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고 느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기에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겐 자기를 기억해 주었구나 라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다. 바이따빠따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그 사람들이 살고있는 가정집골목으로 들어가야 했다. 파리가 수도 없이 날라 다니고 가축들이 집이며 골목이며 돌아다닌다. 그 곳에 살면서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빨래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합장을 하며 인사하고 아이들은 뛰어나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다. 나도 따라 합장하며 인사하면 환하게 웃어준다. 그 파리가 날리는 골목을 걸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참 신기하다. 비전홈에선 처음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환영한다고 안아주었다.

낮가리는 내가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있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배려심이 넘쳤고 부모를 여의었음에도 김경미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키우고 사랑으로 키웠는지 보였다. 집에 가기 전엔 안아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2 달 동안 봉사하면서 느꼈다. 사랑받고 있구나 깨닫게 하는건 물론이고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짧게나마 말을 건넬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짧은시간이라면 짧은 2 달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얻은 것이 참 많이 있다. 살면서 절대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했으며 인도인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었고,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국에선 받지 못할 환영을 받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대가없이 이렇게 환영받고 환영해줄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다. 아마 내가 느낀 인도의 특성때문에 김경미 선교사님도 수많은 나라중에 인도를 택해 선교활동을 하는게 아닌가 싶다. 교회는 물론이고 성경내용조차 잘 모르던 내가 2 달동안 성경을 읽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 봉사의 의미는 나에게 다르게 다가왔다. 짧은 봉사기간동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감사 할 수 있는 마음을 느끼게 성경말씀을 알려주고 다리가 되어준 김경미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원자님!

주의 은혜로 1 년 머무를 수 있는 인도 비자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아!!!!

여러분의 힘있는 기도로 제가 더욱 난달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1. 인도에 무사히 입국하게 되도록 2. 토덴들라팔레 교회를 비롯한 5 개교회 봉헌할 수 있도록 3. 장학금을 비롯한 교육 학비지원이 계속 되도록 4. CSI 학교 강당 및 급식실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이곳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쪽~~~

감사합니다.

2019 년 6 월 15 일

인도 비자를 받아 출국을 앞두고....